

受賞作品展



서울

日時：1994年 11月 1日～11月 6日

場所：國立中央圖書館展示室

예산

日時：1994年 11月 29日～12月 3日

場所：禮山文化院展示室

主催：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
禮山文化院



忠禮山
清南道郡
韓國文化院聯合會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體育部

第五回 秋史先生 追慕 全國書藝 白日場 審查評



審查委員長 東江 趙守鎬

자랑스런 秋史예술의 올바른 계승과 민족 書藝文化의 창조적 개발을 염원하면서 시발한 秋史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이 금년으로 다섯들을 맞이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수 많은 이름의 白日場 및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어 書藝人으로써 마음이 든든하기 그지 없지마는 특히 秋史선생 추모 백일장은 그意義가 깊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白日場이 해를 거듭하면서 內實을 다지고 운치있게 발전하는 모습은 한국 서예 문화의 중흥과 무한한 비약을 다짐하는듯 가슴이 흐뭇하다.

이 흐뭇함을 음미하면서 모든 심사위원은 귀감이 되는公正한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다.

심사소감을 전체적으로 간명하게 언급 한다면 제1차의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한글, 漢文, 文人畫의 즉석 挥毫 솜씨는 전체적으로 우열이 없고 매우 수준이 높고 작품의 질이 고르다는 점 무언가 自己의 창작활동은 물론 獨自의 가치 표현의 가능성성이 엿보이는 점 본대회의 취지를 밝게 해준다.

금년도의 서제는 문인화는 自由로히 하였고 한글부 및 漢文部의 서제는 「가을 물 깊어도 겨우 너댓자, 녹음 사이 사이로 두 서너 집뿐.」(秋水縫深四五尺, 緑陰相間兩三家.)의 同一한 서제가 주어졌는데 몇자 되지 않는 글중에서 오자, 딸자

가 있어 선에 올리지 못해 아쉬웠다.

작품선발의 기준은 菲획, 결구, 배자, 장법, 낙관등 전체적인 調和 및 氣脈의 貫通에 力點을 두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新人다운 참신성과 독자적인 書學方法의 문제라고 하겠다.

한글부, 문인화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무기력한 것이 험이였고 한문부의 서예 및 해서의 작품들이 다채롭지 못하고 단조한 書風의 일색을 보여준 점이 주최측이나 참가자측이나 改善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백일장이 500만 書學徒들의 정서의 보금자리가 되고 축제로 발전하고 서예술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지한 관심과 동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秋史선생의 창조적인 예술정신은 이나라 모든 서예인의 창조성 개발에 참뜻을 깨우쳐 주는 광장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끌으로 秋史선생 추모의 바른길은 承古新花의 書家的 自尊과 力量을 키워나가는데 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술한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낸 秋史선생의 불굴의 인간정신과 인간적인 삶의 진실을 간파 하는데 있다.

墨鄉 禮山은 全國 書藝白日場 最適地

~ 英傑인 秋史 金正喜를 輩出 ~



禮山郡守 李 仁 禾

먼저 第5回 秋史 追慕 全國 書藝 白日場의 發展을 祝
願한다.

墨鄉 禮山은 山紫水明하여 墨客이 즐겨 찾았고 忠臣 烈士
들을 많이 輩出해 낸 고장으로서 地名답게 禮를 崇尚한 선비
의 고장이며 文鄉이다.

書道는 漢文의 傳來와 그 理解를 前提로 하고 있어 禮山은
墨鄉으로 地域의 特性이 있음을 證明하고도 남는다.

그동안 輩出된 書藝家에 關한 史乘의 寂寢은 出身地 조차
不分明하여 書藝史上 地域性을 云謂한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
까우나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眞蹟의 遺存과 함께 書藝家들의
行狀과 出身地 및 緣故地가 밝혀지고 있어 書藝家 輩出의 地
緣性을 參考할 수 있음은 꼭 多幸한 일이다.

이런 面에서 禮山地方은 書藝의 代表的 名人們이 항상 연
고가 닿은 地域으로 名家墨蹟이 集中 寶藏되는 墨鄉의 傳統
을 끊임없이 이어온 고장으로 頭角을 나타내는데 遙色이 없
다 하겠다.

墨鄉의 開基를 열어놓은 始祖格인 人物은 自庵 金祿로서
新岩이 鄉里이고 筆法은 매우 强健하고 險勁하지 않아서 當

時에 이미 威而不猛의 評을 들었다고 하며 그 書體는 仁壽體이다.

또한 大述이 鄉里인 鵝溪 李山海와 石樓 李慶全 父子의 大字는 뛰어났고 특히 草書는 追從을 不許 하였으며 孤山 黃耆老는 德山이고 玉洞 李淑는 古德에 緣故를 두어 子弟諸孫이 東國眞體를 傳播하여 墨鄉으로서의 面目을 一新시켰다고 한다.

특히 書藝史上 不世出의 英傑인 秋史 金正喜를 輩出하여 書藝史의 찬연한 빛을 남기고 있어 東方 第一의 秋史體를 創始하였다.

歷史는 根源과 發祥을 찾아 고증하고 研究하여 發展시켜 나가므로 書藝도 같은 脈絡에서 볼때 書藝史上 劃期的인 人物의 輩出과 항상 깊은 聯關係를 맺고 있어 마치 中國의 吳越地方과 같으니 可謂 書道의 靈地인 墨鄉 禮山에서 全國 書藝白日場을 開催하는 것은 當然한 鑄結로 所見된다.

1994年 10月 / 〇日

命題

자 유 제

文人畫

가을 물 깊어도 겨우 너댓자
늦은 사이사이론 두서너 짐쁜

한글

秋水纔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漢文

審查委員長 東江 趙 守 鎬

審查委員 張浦 金 相 用

字下 金 正 財

友山 宋 河 璞

산들 趙 龍 善

壯元(秋史賞)
文化體育部長官賞



青鹿 李翰姑 (서울시, 서초구)

(136 cm × 35 cm)

秋
水
陰
相
間
深
兩
三
五
尺

甲戌秋日書鳳韓治善

臨
漢
第
屋
獨
閑
居
外
客
月
不
白
鳩
來
風
清
興
有
餘
鳥
語
移
床
竹
看
書

書鳳韓治善

書鳳韓治善 (경기, 안양시)



次 上.(忠清南道知事賞)

梅月堂詩

秋陰相間雨
水繞深三四家
綠
宋寅道
甲戌秋日

河詩前客
雁思蟋裡青
軟清蟀青
於語燈
霜
水新秋
更涼夜
歸園宋寅道
歸
錄梅月堂先生詩
長
聽倚牕
關牕



歸園 宋寅道 (대전시, 대덕구)

(135 cm × 66 cm)

次 上 (忠淸南道知事賞)

나옹선사의 글

마나는 나를 보고 청정히 살라하고 내지는 나
를 보고 워만히 살라하네 상독도 나버리고 오
목도 나버리고 날갈이 그름갈이 이우우히 가
락하네 나옹선사의 글을 쓰니 풍경그호성 風景
聖 13

가을 가을에
옹사이사이론 드러너 집 뼈

감수정 가을에 풍경그호성 風景
聖 13

봉길 廬孝善 (충북, 청주시)

(133 cm × 35 cm)



栗谷先生詩

山僧波水伸
林末茶烟起
採藥忽迷路
于峰秋葉裏

栗谷先生詩中歲晚秋古峰李善敬

秋水繞深四五尺
綠陰
相間兩三家
甲戌寒露
古峰李善敬

古峰 李善敬 (광주시, 동구)

(130 cm × 35 cm)



秋水鱗鱗
四五六鱗
鰐桓桓兩三周
瑞景林奎

瑞景林奎 (강원, 삼척시)

種隱德謹庸行

甲戌寒露瑞景林奎

丁巳

(136 cm × 34 cm)



次 下



靜不偏動靡違
甲戌季秋德山慎重範
林陰相間兩首家

德山 慎重範 (서울시, 강남구)

(136 cm × 34 cm)



志燕 金玉任 (서울시, 은평구)



(136 cm × 35 cm)



次 下



浦巖 金榮實 (경기, 성남시)

(136 cm × 33 cm)

김광섭님의 마음

가을무렵
길어도
겨우너댓자
녹음사이
사이론두서너점뿐
—
감술로 도원 김순남 ■

도원 金順男 (경기, 안양시)

나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되어 네 손에 드리고자 했던 그림이지나
독립운동가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가려는 사람으로 봄과
는 사람의 목숨과 외국인들이 봄을 맞아 마땅위에 나리고 있는
마음이 차단되니 그 봄이 봄이 되지 못하고 있어 마땅위에 나리고 있는
봄마다 꿈이 되었지만 그 꿈이 되지 못한 그 봄이 되지 못한 그 봄이 되는
—
김광섭의 마음의 글 ■ 도원김순남 ■

(136cm × 35cm)



第一回 次上

로마서십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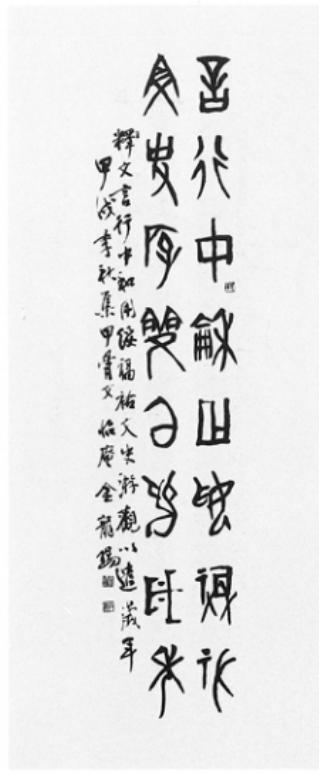
내희가 이 체리를 봄 밟지 말고 오직 벼슬
아세운 물을 맛아하나니 의성한시는
벼슬시 고을 청정한 신뜻을 살피며 벼슬하나
로마서십이장 말씀 주옥경금희

四



(138 cm × 33 cm)

朱玉 金順姬 (서울시, 은평구)



怡庵 金龍錫 (서울시, 노원구)

(136 cm × 31 cm)

第二回 次上



碧下 崔炯柱 (서울시,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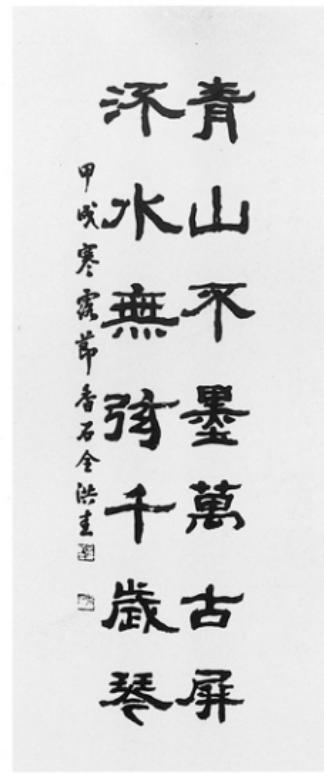
(133 cm × 33 cm)

第二回 次下



산넷 李周炯 (서울시, 구로구)

바둑이 깊은 이 헝성 사직장에 놓고 앉아 키를 치우고
고장의 모나의 온정을 모색되며 연그식을 품어, 치여 함께 낙
그림의 모색되며 험한 벽의 풍물화를 짓고자 여우로
작나오늘 광장에서 노방 악재의 틈을 즐겼지 이 송용식
예년 장수 가지 드란 찬 광경에 빠져 아득히 차자
한 달 만에 그려낸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산넷이 그렸다.



香石 全洪圭 (서울시, 송과구)

(123 cm × 33 cm)



第三回 次下



(116 cm × 45 cm)



青耘 金榮培 (경기, 부천시)



志原 朴洋濬 (대전시, 서구)

第四回 壯元(秋史賞)



지원 李和玉 (서울시, 은평구)



第四回 次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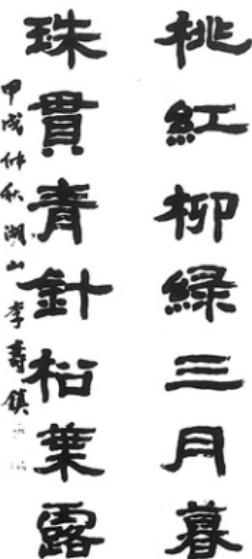
第四回 次下



(136 cm × 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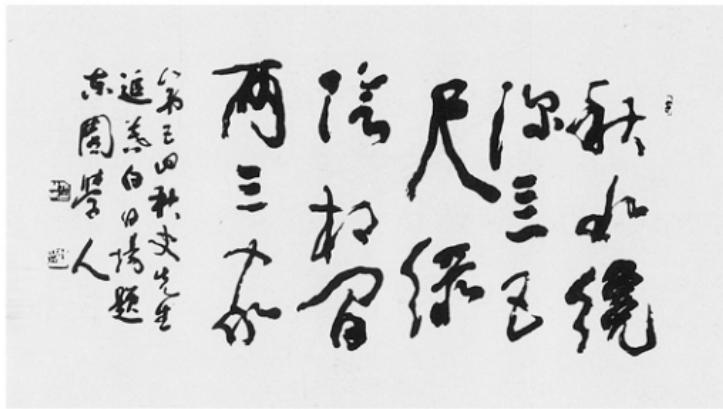
蘭田 康法善 (서울시, 종로구)



(130 cm × 59 cm)



湖山 李壽鎮 (대전시, 서구)



(48 cm × 96 cm)

東園 孫賢周 (전복, 군산시)



綠秋
陰水
相纏
間深
兩四
三五
家尺

甲戌秋雲汀金美蓮畫

綠秋
陰水
相纏
間深
兩四
三五
家尺

甲戌仲秋連谷廉東基書
淡寒露凝梅谷白種春畫

綠秋
陰水
相纏
間深
兩四
三五
家尺

甲戌仲秋連谷廉東基書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秋日 董園 李榮美

秋水繞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甲戌寒露後三日
蘇山崔英泰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暮秋碧樵韓萬平

題

綠秋
陰水
相繞
間深
雨四
三五
家尺

甲戌秋日 義石洪愚基



義石 洪愚基(경기, 안양시)

가을길에 어도자 이어나잇자
죽음사이사이 이룬 드러너지금
감기여우사고락에서 끌려온 길상호



늘물 金相浩(서울, 노원구)

가을 가을 기로 어도 저 이너겟자 늑
온 사이사이 이론 드러너 집뿐

추사 철생의 가을을 쓰는 글입니다.

갈들 주영란 (서울, 은평구)

가을 물물경한 노경우니 맷자
온 사이사이 이론 드러너 집뿐

작곡가: 추사 철생 추오 장에서 쓴 명성전 통령

□

별생 全龍範 (경기, 안산시)

가을 물물길로 어도 저 이너겟자 늑
온 사이사이 이론 드러너 집뿐

작곡가: 추사 철생 추오 장에서 쓴 명성전 통령

찬생 이봉희 (전북, 임실군)

文人畫 特選



雅硯 鄭淑謨(서울, 양천구)



倉剛 崔英成(경기, 성남시)

綠秋
陰水 繩
相間兩三
深四
五尺
家

甲戌
秋日
鳳庭
康吉
變



鳳庭 康吉變 (경기, 수원시)

秋水纓深四
相間兩三家
五尺綠陰

藝松
姜德遠
書

甲戌

寒露節

歲次癸卯

藝松 姜德遠 (광주시, 북구)

秋水纓深四
相間兩三家
五尺綠陰

逸亭
權美順
書

甲戌晚秋佳節

歲次癸卯

逸亭 權美順 (서울, 강동구)

緑
 水
 流
 深
 四
 五
 尺
 綠
 陰
 相
 間
 兩
 家
 井木 金貴成
 甲戌季秋
 井木 金貴成
 乙卯
 金貴成
 乙卯
 金貴成

秋
 水
 纔
 深
 四
 五
 尺
 綠
 陰
 相
 間
 兩
 家
 金美英

秋
 水
 續
 深
 四
 五
 尺
 綠
 陰
 相
 間
 兩
 家
 金善惠
 莊山 金善惠

井木 金貴成 (서울, 강동구)

藍香 金美英 (서울, 관악구)

茅山 金善惠 (서울, 노원구)

秋水纔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甲戌亥月節青耘金榮培書

15

青耘 金榮培 (경기, 부천시)

秋水纔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金瑩淑
固潤

敬潤 金瑩淑 (충북, 청주시)

秋水纔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甲戌十月海雲金容權書

海雲 金容權 (부산, 사하구)

相秋水
間兩三
家纔深四
五尺綠陰

甲戌秋書秋史先生詩
無空金壘淵

相秋水
間兩三
家纔深四
五尺綠陰

無空 金壘淵 (경기, 안산시)

綠秋水
陰相間
兩三五
家深尺

甲戌秋日
藝農金一性

毅農 金一性 (서울, 송파구)

陰秋水
相間兩三
家纔深四
五尺綠

甲戌季秋
以村金載脩

四

以村 金載脩 (서울, 강서구)

秋水纏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甲戌仲秋節
穀松金正泰書

穀松 金正泰 (전남, 목포시)

秋水纏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甲戌仲秋
曉坡金鍾均書

曉坡 金鍾均 (경기, 성남시)

秋水纏深四五尺
綠陰相間兩三家

甲戌仲秋
坡正金行彩書

坡正 金行彩 (서울, 관악구)

陰秋水繞深四五尺綠
相間兩三家 羅仁淑

常溫 羅仁淑 (충북, 청주시)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
成寒露後二日是軒南斗基

是軒 南斗基 (서울, 강남구)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
秋月 翠韻南聖鉉

翠韻 南聖鉉 (경기, 부천시)

秋水纔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歲甲戌良月

松軒朴性哲

松軒 朴性哲 (경기, 수원시)

綠秋水纔深四五尺
相間兩三家

甲戌歲菊秋節

志原朴洋濬

題

志原 朴洋濬 (대전시, 서구)

綠秋水纔深四五尺
相間兩三家

甲戌寒露垂翼

林亭申秉熙

題

林亭 申秉熙 (서울, 노원구)

綠秋
甲成秋
陰水
怡堂安相洙
纏深
怡堂安相洙
間深
兩三尺

綠秋
甲成晚秋
陰水
竹田梁喜錫
纏深
間深
兩三尺

秋水纏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修林呂運子

怡堂 安相洙 (경기, 수원시)

竹田 梁喜錫 (서울, 도봉구)

修林 呂運子 (서울, 구로구)

秋水纔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甲戌仲秋
道林廉永哲書

道林 廉永哲 (전남, 목포시)

秋水纔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禹且權

黃山 禹且權 (서울, 강남구)

秋水纔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白山柳志仁

白山 柳志仁 (전북, 김제시)

綠秋
陰水
相纏
間深
兩四
五家
尺

甲戌季秋
一松尹榮圭

一松 尹榮圭 (서울, 강서구)

綠秋
陰水
相纏
間深
兩四
五家
尺

甲戌仲秋吉辰心松李仁鎔

心松 李仁鎔 (서울, 노원구)

秋水纏深四丈綠陰
相間兩三家

甲戌李秋之院
友玄李載武田

友玄 李載武 (경기, 남양주군)

秋水繞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李正宅
甲戌仲秋

國

淸木 李正宅 (대구시, 종구)

秋水繞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松民
題

淸木 李周烟(경기, 광명시)

秋水繞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甲戌李秋云
張昌根左子題

乙

淸木 張昌根(경기, 안양시)

秋水纔深四五尺綠陰
相間兩三家

秋史先生詩一首
二木周永甲畫

緣秋水纔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仲秋野石趙源復畫

陰相間兩三家
秋水纔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甲戌仲秋
鄭永哲

青根 鄭永哲 (경기, 안양시)

野石 趙源復 (경기, 부천시)

二木 周永甲 (부산시, 남구)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秋 湖山蔡熙昇



湖山 蔡熙昇 (강원, 횡성군)

綠秋水繞深四五尺
陰相間兩三家

甲戌季秋方圓崔秉準書



方圓 崔秉準 (경기, 안양시)

秋水纏深四五尺綠
陰相間兩三家

崔晟烈

仁軒 崔晟烈 (서울, 강남구)

陰秋
相木
問繞
雨深
三四
家五
尺緣

甲戌仲秋
海巖崔恩成書

海巖 崔恩成 (경기, 화성군)

가을 가을 기운 어도져 이어 낸자
죽음사이사이로 드쳐내집께
이사진정을 보면서 차마 나장에 서니 허가되었던 것이다.

누리 美七星 (서울, 강동구)

가을 가을
가을에도 저녁
나잇자슥
을 사이사이
이 흥두Shock
네 집 뿐

갑
술
년
가을
더
공
기
혜
옥

가을 가을
가을에도 저녁
나잇자슥
을 사이사이
이 흥두Shock
네 집 뿐

한국

여울 김정수(서울, 노원구)

더끈 김혜옥(경기, 의정부시)

가 익숙한 기운에 도자기 냄새가
사 이사 이 풍기며 진풀

경상남도 양산에서 청자 학제의 품

가 익숙한 기운에 도자기 냄새가
사 이사 이 풍기며 진풀

경상남도 양산에서 청자 학제의 품

가 익숙한 기운에 도자기 냄새가
나는 사 이사 이 풍기며 진풀

경상남도 양산에서 청자 학제의 품

정재 박 계 애 (인천시, 복구)

曉園 朴泰萬 (경남, 양산군)

怡川 孫乙鎬 (서울, 서대문구)

가을에 진언과 우연대자
죽음이 시온 르트서너집뿐

갑수령 가을날 전국회 회회 청강 ■

가을에 진언과 우연대자
사이사이 르트서너집뿐

갑수령 가을날 전국회 회회 청강 ■

가을에 진언과 우연대자
죽음이 시온 르트서너집뿐

갑수령 가을날 전국회 회회 청강 ■

文谷 安道榮 (부산, 부산진구)

석천 옥영립 (서울, 강남구)

청강 李柱鐸 (경기, 광명시)

가을 가을 길어도 저녁에 냅자
늦은 사이사이 를 두려워 집에
별 알루미늄 가을을 한 틀 최우회

가을 가을 기포 어도 저녁에 냅자 놓
는 사이사이 를 두려워 집에 떨

감자리 가을에 눈을 조성희 쓰나

가을 가을 기포 어도 저녁에 냅자 놓
사이사이 를 두려워 집에 떨

감자리 가을에 눈을 조성희 쓰나

청후 전의 수(서울, 구로구)

눈술 趙京姬 (충남, 논산군)

한술 최순례 (전북, 군산시)



素庭 金瑞玉 (서울, 성동구)



素然 金秀那 (전북, 군산시)



菊丁 金鍾禮 (서울, 강서구)



木丁 金柱用(서울, 강서구)



昇甫 金振國(충남, 공주시)

榮光金氏
甲戌
韓元朴壽子



韓元 朴壽子(서울, 강남구)



仁塘 徐注善 (인천시, 남구)



少巖 沈載元 (경남, 울산시)



芝園 李龍順 (경남, 창원시)



德雲華 張淳德 (경남, 창원시)



羅泉 黃敏雨 (전북, 군산시)

入賞科生 名單

壯元(秋史賞) 文化體育部長官賞

青鹿 : 李翰姑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6-5

(02)593-8936

次上(忠淸南道知事賞)

書鳳 : 韓治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경향④ 219

(0343)58-5420

次上(忠淸南道知事賞)

歸園 : 宋寅道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296-2

(042)932-0628

次上(忠淸南道知事賞)

봄길 : 蘆孝善 충북 청주시 우암동 388-4

(0431)55-5391

次下

古峰 : 李善敬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 던일B/D

(062)222-4115

瑞景 : 林 奎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2

(0397)72-1572

德山 : 慎重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나상가 203호

(02)576-9345

志燕 : 金玉任 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111-5

(02)353-9574

浦巖 : 金榮實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2999-32

(0342)48-3728

道원 : 金順男 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 307-18

(0343)72-7792

第一回 次上

朱玉 : 金順姬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434-11

(02)387-0770

第二回 壯元(秋史賞)

怡庵 : 金龍錫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벽산상가 304

(02)973-4756

第二回 次上

碧下 : 崔炯柱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13-1

(02)652-2883

第二回 次下

산벗 : 李周炯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58-25

(02)686-4041

第三回 壯元(秋史賞)

香石 : 全洪圭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35-9

(02)402-5121

第三回 次下

青耘 : 金榮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99-2

(032)343-9313

志原 : 朴洋濬 대전시 서구 정림동 686

(042)582-9144

第四回 壯元(秋史賞)

지원 : 李和玉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447-64

(02)386-4121

第四回 次上

蘭田 : 康法善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④ 605호

(02)739-9302

第四回 次下

湖山 : 李壽鑑 대전시 서구 복수동 계룡④ 3동 107호

(042)582-4510

東園 : 孫賢周 전북 군산시 문화동 893-34

(0654)62-8077

特選

雲汀 : 金美蓮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208-20	(032)662-0774
梅谷 : 白種春	서울시 도봉구 번동 주공④ 508-1308	(02)989-1006
連谷 : 廉東基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82-9	(032)343-7101
董園 : 李榮美	충북 청주시 사직2동 쌍용④ 3-201	(0431)65-5469
蘇山 : 崔英泰	서울 노원구 상계8동 주공④ 1509-203	(02)935-5275
碧樵 : 韓萬平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서오④ 202-1206	(0458)33-3612
義石 : 洪愚基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571-10 동신④ B동 201호	(0343)41-5453
늘물 : 金相浩	서울 노원구 상계8동 주공④ 1607-904	(02)935-1995
찬샘 : 이봉희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4-1	(0673)42-7748
별샘 : 全龍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1-1 유경B/D 4층	(0345)407-5246
갈뜰 : 주영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334-3	(02)352-2387
雅硯 : 鄭諷謨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시영④ 19-701	(02)692-0778
倉剛 : 崔英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247	(0342)48-9044

入選

鳳庭 : 康吉燮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77-4 12/3	(0331)292-1685
藝松 : 姜德遠	광주시 북구 오치동 975-18	(062)525-9591
逸亭 : 權美順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④ 502-1305	(02)473-7301
井木 : 金貴成	서울 강동구 천호2동 326-9	(02)487-7692
藍香 : 金美英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100	(02)871-5423
茅山 : 金善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④ 102-1303	(02)933-2034
青耕 : 金榮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99-2 동신상가204	(032)343-9313
敬淵 : 金瑩淑	충북 청주시 내덕1동 삼일④ 303동 303호	(0431)52-6617
海運 : 金容權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86 7/2	(051)202-4950
無空 : 金壘淵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9 전원빌동406	(02)365-0574

毅巖 : 金一性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종합상가301호	(02)413-4898
以村 : 金載俸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2-83 화곡빌딩4층	(02)696-8255
毅松 : 金正泰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078-7	(0631)42-2883
曉坡 : 金鍾均	경기도 성남시 수정서구 태평2동 3491-1	(0342)721-6522
坡正 : 金行彩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6-4	(02)889-5015
常淵 : 羅仁淑	충북 청주시 내덕1동 삼일④ 303호 501호	(0431)55-3030
是軒 : 南斗基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2 현대④ 22-503	(02)577-6730
覃韻 : 南聖鉉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98 동신④ 6-402	(032)343-6903
松軒 : 朴性哲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1186 삼천리④ 102-404	(0331)34-4550
志原 : 朴洋濬	대전시 서구 정립동 삼정하이츠④ 103-1505	
林亭 : 申秉熙	서울 노원구 하계동 우성④ 110-309	(02)949-3701
怡堂 : 安相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20-1 채림빌라 다-201(0331)42-9415	
竹田 : 梁喜錫	서울 도봉구 수유2동 백산④ 12동 1007호	(02)905-3414
修林 : 呂運子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④ 104-904	(02)867-0937
道林 : 廉永哲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44-1	(0631)76-1180
黃山 : 禹且權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2-8 영동시장④ 410	(02)543-2309
白山 : 柳志仁	전북 김제시 서암동 두일골드④ 108	(0658)42-1413
一松 : 尹榮圭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5-5 등마루④ 311호	(02)651-7648
心松 : 李仁鎔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84-60 남광연립 B-201	(02)975-5914
友玄 : 李載武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727	(0346)592-0872
淸木 : 李正宅	대구시 중구 남산4동 2466-1 보성황실상가4층	(053)629-8532
松民 : 李周炯	경기도 광명시 칠산3동 722 716/204호	(02)614-2453
雪松 : 張昌根	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1472-9	
青垠 : 鄭永哲	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1462-12	(0343)22-0226
野石 : 趙源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61-19	(02)344-9231
二木 : 周永甲	부산시 남구 망미1동 457-24	(051)755-5892
湖山 : 蔡熙昇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태우④ 1-906	(0372)43-9060

方圓	崔秉準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 994-40	
仁軒	崔晨烈	서울 강남구 삼성동 20-5	(02)547-3670
海巖	崔恩誠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2리 1163-12	(0339)57-7172
누리	姜七星	서울 강동구 길1동357-7 16/5 부홍맨션2-102	(02)476-6880
여울	김정수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53-1 현대④ 115-702	
더끈	김혜옥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벽산④ 5-1705	(0351)40-4093
정재	박계애	인천시 북구 신곡4동 경남④ 208-605호	(032)503-8906
曉園	朴泰萬	경남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31-6	(0523)362-3067
怡川	孫乙鏞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 인창중고교	(02)668-5288
文谷	安道榮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91-15 17/3	(051)805-5375
석천	육영림	서울 강남구 일월동 689-2 현대④ 22-503	(02)577-6730
청강	李柱鐸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 58 우성상가	(02)619-4778
청후	전의수	서울시 구로구 시흥1동 990-14	(02)807-8480
눈솔	趙京姬	충남 논산군 논산읍 부창주공아파트 104-302	(0461)735-3793
한솔	崔順禮	전북 군산시 문화동 893-34	(0654)63-8077
素庭	金瑞玉	서울 성동구 자양동 695 한양④ 3-207	(02)453-4929
素然	金秀那	전북 군산시 나운동 606-5	(0654)62-1566
菊丁	金鍾禮	서울 강서구 화곡4동 1130-37 제일빌라 201	(02)699-1921
木丁	金柱用	서울 강서구 화곡4동 840-15	(02)643-9722
昇甫	金振國	충남 공주시 월송동 501-1	(0416)856-6879
祿元	朴壽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8-16	(02)543-5367
仁塘	徐往善	인천시 남구 연수 1동 13블럭 주공④ 102-906	(032)811-3945
少巖	沈載元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166-17	(0552)48-0516
芝園	李龍順	경남 창원시 명서2동 124-12	(0551)89-1641
德雲華	張淳德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성원④ 301-1004	(0551)87-2819
羅泉	黃敏雨	전북 군산시 송풍동 921 1/5	(0654)62-9739

後記

다섯번 째 場을 마무리 하면서

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塔을 이룬다. 그래서 後世에 넘겨준다.

해를 거듭 할수록 그 水準이 높아진다고 元老 書家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뭄에 콩나듯" 이란 우리네 俗語가 있듯이 드물었던 文人畫가去年 부터 그 人口가 늘어 나더니 금년에는 壯元을 차지 하곤 한다.

秋史公의 文人畫 精神을 익혀 뒤를 이어 가려는 後學이 있어서 대견 스럽기만 하다.

당초의 計劃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아쉽던 한해이기도 하다. 또한 不便스러웠던 한해이기도 하다.

秋史公이 남긴 書畫의 藝術性과 學術을 主題로 한 研究發表와 討論會를 期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來年으로 미루어 둘 수 밖에 없다.

純粹한 民 주도가 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기를 合掌한다.

秋史公의 遺蹟地를 巡禮 探訪 하는것을 遊覽으로 보는 側도 있다.

그러나 秋史公이 남긴 遺香을 찾아 調味 하면서 先生의 學德과 藝德를 되새겨 배우는 일을 計劃했다.

뜻 있는 書壇의 家族들이 作班 해 보는것도 虛無한 旅行이 아닌 성 싶다.

禮山文化院長

李恒馥

祝 受 賞 作 品 展

禮山文化院傘下團體

뿌리모임

풍물패 「아사달」

禮山鄉土史研究會

禮山青年文學會

禮山傳統工藝 同人會

禮山時友會

禮山書藝研究會

禮山寫友會

梅軒合唱團

劇團 「소란」

